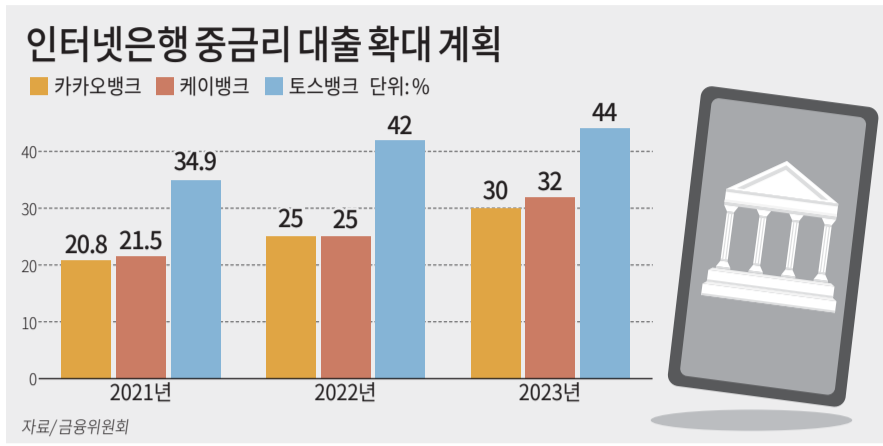


파격 대출 내놓은 토스뱅크, 출범 일주일 만에 '한도 바닥'

토스뱅크, 대출 중 25% 중금리 대출 연말까지 대출한도 2000억 남아 중단시 2% 입출금 통장 발급 영향

토스뱅크가 출범한 지 일주일만에 대출한도를 절반 이상 소진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규제가 강화되면서 올해 말까지 대출한도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는 것. 대출이자 없이 예금이자 부담을 늘릴 경우 건전성까지 위협할 수 있어 은행업무가 모두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가 신용대출로 공급한 금액은 약 3000억 원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토스뱅크의 가계대출 총량을 5000억원으로 제한했다. 지난 5일 출범한 지 일주일 만에 연말까지 취급할 수 있는 대출한도가



2000억원 밖에 남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신용대출 25% 중금리대출
특히 토스뱅크는 신용대출로 공급한 금액 가운데 25%가량을 중금리 대출로 공급했다. 올초 토스뱅크는 금융당국에 중·저신용자대출비중을 34.9%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바 있

다. 올해 카카오펙과 케이뱅크의 중금리 대출비중이 10%대에 그친 것과 달리 출범 일주일만에 목표치의 절반 이상을 달성했다는 설명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기존 토스앱 운영으로 마련한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대출을 받지 못한 중·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확대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취지가 중금리 대출확대에 있는 만큼 최대한 목표치를 맞추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 대출한도 추가가능성 낮아
문제는 올해 말까지 가계부채 총량규제가 강화되면서 더 이상의 대출한도 추가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것. 금융권 관계자는 "규제강화 움직임에 시중은행까지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중단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토스뱅크에만 예외를 주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토스뱅크의 경우 대출업무에 이어 예금업무까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토스뱅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금상품, 2% 수시입출금 통장은 중금리 대출의 수익을 재원으로 금리를 공급하는 구조다.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중금리대출이 묶일 경우 재원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고객들의 불만은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2% 입출금통장 발급 대기자수는 135만명을 넘어섰다. 당초 토스뱅크는 출범 당일 신청자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었지만 총량규제를 적용받으면서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출한도가 제한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속도 또한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현재 토스뱅크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을 가계부채 총량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애초 계획대로 고객들에게 빠르게 서비스를 열고 싶은 마음"이라며 "당국과 협의를 지속하면서 여러 방안을 고려 중에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CU 편의점서 하나은행 계좌 만든다

BGF리테일과 디지털 혁신채널 구축 하나은행 스마트 셀프존, 별도 구성

'은행과 편의점이 만났다'. 앞으로 편의점에서 하나은행 계좌를 만들고, 통장을 새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은행은 BGF리테일과 함께 디지털 혁신채널을 구축하고, CU마천파크점에서 종합생활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12일 밝혔다. 이 점포에는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하나은행 스마트 셀프존이 별도로 구성됐다. 또 상담원과 화상상담 연결이 가능하도록 종합금융기(STM)와 현금지급기(CD)가 각각 1대씩 설치돼 있다.

이에 따라 고객은 점포 내 STM에서 ▲기존 ATM 업무 ▲금융거래를 위한 신분확인 및 바이오 인증 ▲계좌 개설 ▲통장 재발행 ▲체크카드 발급 ▲보안카드(OTP) 발급 등이 가능하다. 영업점을 방문해야 처리할 수 있었던 업



은행가 편의점이 결합한 디지털 혁신 채널 'CU마천파크점' 외관. /하나은행

무를 포함한 약 50가지의 다양한 은행 업무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스마트 셀프존은 화상 상담 연결이 필요한 일부 업무를 제외하면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이밖에도 양사는 하나은행 스마트

셀프존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제공한다. 점포에서 하나카드 상품 구입 시 추가 가격 할인 및 CU멤버십 포인트 적립 혜택 제공된다.

/나유리 기자

소액연체금 전액 상환시 연체이력 미공유

올해 말까지 전액상환

금융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소액 연체금을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신용정보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연체가 발생한 금액에 한해서다. 소액연체 기준은 2000만원이다.

신용정보원은 이번 신용회복지원 방안으로 코로나19 기간 연체가 발생해 상환한 차주 중 206만명의 개인대출자와 약 16만3000명의 개인사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개인신용 점수도 상승한다. 개인대출자의 경우 평균 672점에서 704점으로 신용점수가 평균 32점 오른다. 개인사



조회홈페이지 /신용정보원

업자는 평균 7.9등급에서 평균 7.3등급으로 0.6등급 상승한다

한편 신용회복지원대상 확인은 신용평가사(NICE평가정보·KCB·SCI평가정보 등) 및 신용정보원에서 조회 가능하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지원 대상 연체상환기간이 올해 말인 점을 감안할 때 지원 대상자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인해 카드발급 및 신규대출 등 금융접근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신한금융, '프롭테크 게임체인저' 개최

총 상금 5000만원

신한금융그룹이 아시아에프앤아이와 함께 '프롭테크 게임체인저 1기'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한금융과 아시아에프앤아이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프롭테크(PropTech) 영역에서 유니콘으로 성장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향후 투자, 육성 및 미래사업을 위해 함께 협력할 계획이다. 프롭테크는 부동산 자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첨단 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를 말한다.

이번 공모전은 프롭테크 영역에서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 실행력을 보유한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팀) 모두 지

원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10월 12일부터 11월 8일까지다.

'프롭테크 게임체인저' 공모전에 선발된 기업은 총 상금 5000만원 및 최대 10억원의 투자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 1년간 전용 사무공간을 제공받고 신한 퓨처스랩 8기(2022년 1월 예정) 선발 등 스케일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신한퓨처스랩 이성용 랩장(신한DS 사장)은 "퓨처스랩이 그간 축적한 스타트업 육성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아시아에프앤아이와 함께 프롭테크 게임체인저로 선발된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우리은행

아프간 특별기여자 지원

우리은행은 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입국한 아프간 특별기여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8월 입국한 아프간 특별기여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으로 법무부는 이들에게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국내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오는 15일까지 4일동안 아프간 특별기여자 391명이 임시로 체류 중인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이동점포를 설치해 ▲통장개설 ▲인터넷·모바일뱅킹 개설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국내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금융교육도 실시한다.

/이승용 기자 lsy2665@

OK금융, 신입·경력 최대 100여명 채용

IT관련 자격증 보유자 우대

OK금융그룹이 신입·경력 직원을 채용한다. 규모는 최대 100명 안팎이다.

OK금융그룹은 오는 24일까지 전문역량과 다양성을 보유한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2021 신입·경력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개채용은 신입의 경우 국내외 4년제 대학 기졸업자 및 졸업예정자가 대상이며, 경력은 각 직무별 모집 요건에 따라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신입은 ▲서류전형 ▲AI역량검사 ▲1차·2차 면접 ▲연수 및 채용 검진 순으로 진행되며 입사 지원 시 금융관련 자격증 또는 IT관련 자격증 보유자는 우대된다.

지원서 접수는 오는 24일 오후 5시까지 OK금융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진

행된다. 모집 계열사 및 채용 부문은 ▲OK저축은행(개인및기업금융·디지털금융·경영기획) ▲OK캐피탈(IB·여신심사·자금) ▲OK홀딩스(전략기획·경영지원·자금) ▲아프로파이낸셜(영업기획·감사) ▲OK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디지털금융) ▲OK데이터시스템(IT) 등이다.

OK금융그룹은 이번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한 신입·경력사원이 저축은행, 캐피탈, 소비자금융업을 중심으로 금융전문역량을 보유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OK금융그룹은 사내 임직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와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선발되는 신입사원은 업계 최고 수준의 급여(인센티브·현금성 복리후생비 등 포함 5000만원 수준)가 지급된다.

/권소환 기자 think@